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김홍식 장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장)

아프리카를 기억 하소서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마음이 바빠진다. 바쁘게 다닐 일이 많은데 교통이 막히면 조금씩 지진다. 차로 갈 때든 걸어갈 때도, 좋은 싫든 우리는 교차로를 만나게 되어있다. 늦어지기에 썩 반갑지 않은 곳이지만, 오히려 교차점에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숨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사람과 마주칠 수 있다. 오래 전에 헤어졌다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 반가운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못 만나던 사이에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관이 비슷해진 것과 나아가 같이 기도 할 수 있을 때는 너무 기뻐서,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통하는 마음과 사랑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의 교차점에서 반가운 이들을 만나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함께 일하고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며 기쁨임을 깨닫는다. 때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교차가 있어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어야 동행이 있고, 동행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때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생각을 다시 바꾸게도 된다. 내가 왜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양보하지 못했는가? 교차로의 모양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떠오른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똑바로 생긴 십자가이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아가 순교한 X자형이든, 십자가의 교차점은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꿔게 해 준다. 희생을 통한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며 적대감에서 긍휼을, 절망에서 희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여준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얼마 전 '오늘의 양식'에서 읽은 내용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목사가 간구하자 교인들도 울면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영상을 보면서, 어린 시절 '오늘의 양식' 필자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똑같이 간구했던 기억이 났다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행동하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을" 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는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인간이 예상치 못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

아프리카에 쌓여 있는 문제들과 현실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 떡떡해질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도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 겸손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프리카를 기억하소서!"

한국본부



Mission

우리는 지속적인 섬김과 나눔,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을 도와 아프리카 주민들과 함께 더 건강한 아프리카 미래를 만듭니다.

Vision

건강한 아프리카
의료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여 자립 의료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미래가 있는 아프리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리더로 양성합니다.

행복한 아프리카
아프리카 현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 공동체
모든 임원, 스태프, 현지 파트너와 기관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갑니다.

생명(生命), 생(生)을 명(命)하노라



박상은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샘병원 미션원장)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힘들어 온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단지 시간의 변화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희망의 카이로스를 기대하게 된다. 올해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첫째, 먼저 생명존중의식을 살려내야 한다. 수천 명의 확진자와 수백 명의 중증 환자, 수십 명의 사망자 통계를 매일 접하며 우리의 생명존중의식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주보다 귀한 생명의 소중함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사건 이후인 2016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생명존중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 사회가 다시금 생명존중의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지수를 키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생명존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실시한 인터뷰 결과, 대부분 후보들의 생명존중의식이 희박하며 일부 후보들은 인터뷰조차 응하지 않는 무례를 행하는 것을 보며 더욱 생명 존중지수의 개발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둘째, 지속가능한 생명존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의료 일선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코로나전담 감염병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코로나 중증 환자들의 입원을 위해 그동안 치료해왔던 일반 중증 환자들의 진료를 진행할 수 없어 이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는 사립병원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기 위해 기존의 병실을 코로나 병실로 바꾸며 대부분의 호스피스병동과 중증 병동이 폐쇄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그 폐해가 고스란히 비감염 응급 환자나 중증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염전문병원과 공공병원은 필히 확충되어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약한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진정한 생명 존중은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함으로 증진된다. 그러기에 생명

윤리의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함에 있어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 구조상황에서 실상은 정반대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응급재난 상황에서 약자인 노인과 유아, 산모와 장애인들이 먼저 구출되어야 함에도 세월호의 경우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피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연약한 약자인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자가 아닌가?

넷째, 생명은 결코 혼자서 지켜낼 수 없는 공동체적인 운명이다. 코로나를 통해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자국의 배타적인 감염관리로 결코 팬데믹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처했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자국 중심의 방역과 백신정책을 쏟아 내었지만, 엉뚱하게도 델타와 오미크론의 변이바이러스는 다른 제3세계에서 출현하여 다시금 전 세계를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로 물고 간 것이다. 지구촌은 이제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아픔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생명은 목숨을 살리라는 신의 명령이다. 그 어떤 인간 생명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모든 인간생명은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신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다. 그 생명은 단회적인 동시에 대체 불가하다.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기에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기에 때문이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 생명을 지켜내는 생명지기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에 죽음의 행렬로 내몰리는 연약한 인간생명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헌혈과 조직기증 등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캠페인에도 함께 하여 생명존중의식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그 무엇보다 생명이 최우선이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생명(生命), 생(生)을 명(命)하노라



박상은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샘병원 미션원장)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힘들어 온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단지 시간의 변화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희망의 카이로스를 기대하게 된다. 올해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첫째, 먼저 생명존중의식을 살려내야 한다. 수천 명의 확진자와 수백 명의 중증 환자, 수십 명의 사망자 통계를 매일 접하며 우리의 생명존중의식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주보다 귀한 생명의 소중함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사건 이후인 2016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생명존중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 사회가 다시금 생명존중의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지수를 키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생명존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실시한 인터뷰 결과, 대부분 후보들의 생명존중의식이 희박하며 일부 후보들은 인터뷰조차 응하지 않는 무례를 행하는 것을 보며 더욱 생명 존중지수의 개발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둘째, 지속가능한 생명존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의료 일선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코로나전담 감염병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코로나 중증 환자들의 입원을 위해 그동안 치료해왔던 일반 중증 환자들의 진료를 진행할 수 없어 이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는 사립병원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기 위해 기존의 병실을 코로나 병실로 바꾸며 대부분의 호스피스병동과 중증 병동이 폐쇄되거나 축소 운영되어, 그 폐해가 고스란히 비감염 응급 환자나 중증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염전문병원과 공공병원은 필히 확충되어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약한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진정한 생명 존중은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함으로 증진된다. 그러기에 생명

윤리의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함에 있어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 구조상황에서 실상은 정반대의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응급재난 상황에서 약자인 노인과 유아, 산모와 장애인들이 먼저 구출되어야 함에도 세월호의 경우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피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연약한 약자인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자가 아닌가?

넷째, 생명은 결코 혼자서 지켜낼 수 없는 공동체적인 운명이다. 코로나를 통해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자국의 배타적인 감염관리로 결코 팬데믹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처했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자국 중심의 방역과 백신정책을 쏟아 내었지만, 엉뚱하게도 델타와 오미크론의 변이바이러스는 다른 제3세계에서 출현하여 다시금 전 세계를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로 물고 간 것이다. 지구촌은 이제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아픔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생명은 목숨을 살리라는 신의 명령이다. 그 어떤 인간 생명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모든 인간생명은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신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다. 그 생명은 단회적인 동시에 대체 불가하다.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기에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 생명을 지켜내는 생명지기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에 죽음의 행렬로 내몰리는 연약한 인간생명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헌혈과 조직기증 등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캠페인에도 함께 하여 생명존중의식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그 무엇보다 생명이 최우선이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간다 선교 소식

이상철 • 고유덕 선교사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선교 소식을 올립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더 높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아프리카와 우간다 선교에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국 방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째 찬양이와 셋째 기쁨이 연속으로 혼인예배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우간다로 귀임했습니다. 기쁨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귀국이 힘들어 줌으로 비대면 혼인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모든 게 정상화 되면 대면 예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록다운을 시켜 모든 것을 가로 막았던 우간다 정부가 통금을 일부 해제하고 교회예배를 200명 이내로 드리도록 허가하여 감사하지만, 유.초.중고 학교는 금년 말까지 휴교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교회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재정 지원으로 록다운이 되기 전인 지난 5월말까지 학교 운영과 전도 집회를 하여 복음을 전하고 코티도에 교회개척까지 되었고, 두 곳의 교회당 건축도 진행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주일은 교회마다 순회 예배를 드리며 교회 개척과 학교 개교를 준비하면서 건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역의 핵심은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음세대 일꾼을 만드는 일이고, 저희의 중점 사역은 교회 사역(19개 교회), 교육 사역, 미전도종족(지에부족)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지난 1월 한국에서 귀임하자마자 코티도 지역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으며, 2월은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나과나모루아미나선교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집회를 가지고, 3월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를 옮긴 우수크아미나선교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3월에는 미전도 종족인 지에 부족의 중심인 코티도 타운에 교회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가시나무인 식담나무 아래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컸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19교회이며 4곳에 개척을 하려고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로코메 부아미나선교교회와 우수크선교교회 예배당을 건축 중이며 아페로는 교회당 건축과 아무리아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이고 알렉아미나선교교회는 우물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

3월부터 1년간 문 닫았던 초등학교는 학년별 휴교가 풀렸지만, 6월부터 다시 휴교에 들어갔고, 유치원은 지난 3월부터 아직도 휴교 중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학생모집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 개교할 예정이던 유치원교사양성학교는 우간다 국가 록다운으로 내년 초등교사양성학교와 함께 개교를 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4월에 신학교는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지금은 휴교 중입니다. 한국도 심각하지만 우간다가도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미나선교유. 초등학교와 소로티얼린초등학교, 동성열린선교 유치원은 교실과 화장실 건축을 계속하고 있으며, 솔라, 피리침, 빗물탱크 등을 설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더하여 소로티얼린초등학교와 교회



- ① ARMTC 신학교 수업
- ② 미전도종족 나과나모루 예배
- ③ 성경암송 시상식(상품 성경)
- ④ 동성열린선교유치원 졸업식
- ⑤ 코티도 지에부족 전도집회

그리고 알렉아미나선교유치원과 교회당 일반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개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며, 아마도 개교 예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미디어학과와 더불어 세워질 스마트라디오는 은혜 가운데 제작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감사하게도 2016년 고신대학교와 광주영광교회가 운영하는 세품기독교, 그리고 오륜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영훈고와 소로티얼린학교(초.중.고)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 기독교(유, 초등)와 신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와 교사양성학교 그리고 대학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벨트를 완성하여 말씀교육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지에부족 사역(미전도 종족)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보람은 이 힘든 코티도에서 얻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말씀을 배운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학교는 계속 이어지고 나과나모루아미나선교교회 전도집회, 그리고 로코메부아미나선교교회 예배당 건축과 신학생 Tom의 사역으로 로키당아미나선교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퇴학 당한 사이몬피터가 제일영도교회에서 부지를 사주신 코티도 타운 부지에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을 지속해 와서 신학교에도 복학을 시키고 교회도 올 해 3월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나과페루모루, 반양아르, 랭헨타운, 케체레 4곳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랑의 양식을 나누게 되었으며, 감사할 일은 울산 성산

교회와 소중환 교회가 지원해 준 소로티얼린 학생기숙사가 완공되었고, 우수크아미나선교회는 서울광염교회에서 후원하여 우물을 뚫어 양질의 물을 얻게 되었으며, 선교센터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고, 지구촌선교회 후원으로 신학교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형용 장로님 후원으로 소로티얼린초등학교의 숙원이던 교실 앞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워싱턴성광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던 조희성 목사님 가족이 파송 받아 곧 우간다에 오시게 되고, 저희 큰아들이 선교 훈련을 시작하여 우간다에서 동역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재정 후원 덕분에 여기며 특별히 교회당과 학교 교실 건축비, 그리고 사랑의 양식을 나누기 지원, 예배당과 우물을 지원하신 서울광염교회, 신학교 건물과 교회당 건축비를 지원하신 지구촌선교회, 이름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장학금, 빗물탱크, 스마트라디오 제작, 학교 운영비, 전기시설 등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 및 물품 수집하기

사역에 필요한 책과 학습자료(컴퓨터 파일 또는 영상자료, 몬테소리 교구 등)를 찾습니다.

- 1) 언어 : 영어
- 2) 종류 : 유, 초등학교 교재 및 문학, 신학 및 성경교재, 교육학, 전산 관련.
- 3) 필요한 물품 : 각 서적 (E-BOOK, 유, 초, 중고등 학습 교재, 성경적 학습 에니메이션, 성경 공부 및 신학 교재, 몬테소리 교재 및 교구), 물품 (학습교구, 찬양대 가운, 악기, 새 컴퓨터, 방송 영상 기자재 및 음향기기 등)



1



2



3



4



5

- ① ARMTC 신학교 수업
- ② 미전도종족 나과나모루 예배
- ③ 성경암송 시상식(상품 성경)
- ④ 동성영린선교유치원 졸업식
- ⑤ 코티도 지에부족 전도집회

그리고 알렉사미나선교유치원과 교회당 일반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개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 중이며, 아마도 개교 예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미디어학과와 더불어 세워질 스마트라디오는 은혜 가운데 제작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감사하게도 2016년 고신대학교와 광주은광교회가 운영하는 세품기독교학교, 그리고 오문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영훈고와 소로티열린학교(초.중.고)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 기독교학교(유, 초등)와 신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와 교사양성학교 그리고 대학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벨트를 완성하여 말씀교육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지에부족 사역(미전도 종족)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보람은 이 힘든 코티도에서 얻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운영하면서 말씀을 배운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성경학교는 계속 이어지고 나과나모루아미나선교교회 전도집회, 그리고 로코메부아미나선교교회 예배당 건축과 신학생 Tom의 사역으로 로키당아미나선교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퇴학 당한 사이몬피터가 제일영도교회에서 부지를 사주신 코티도 타운 부지에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을 지속해 와서 신학교에도 복학을 시키고 교회도 올 해 3월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나과페루모루, 반양아르, 랭헨타운, 케체레 4곳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랑의 양식을 나누게 되었으며, 감사할 일은 울산 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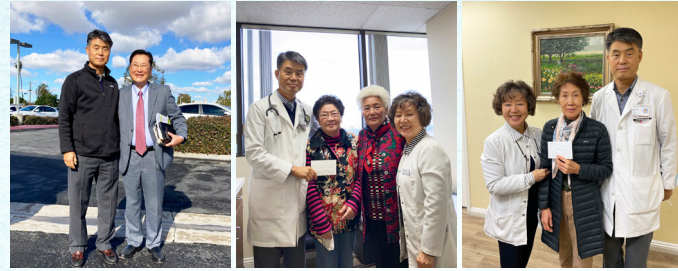
교회와 소중한 교회가 지원해 준 소로티열린 학생기숙사가 완공되었고, 우수크아미나선교회는 서울광염교회에서 후원하여 우물을 뚫어 양질의 물을 얻게 되었으며, 선교센터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고, 지구촌선교회 후원으로 신학교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형웅 장로님 후원으로 소로티열린초등학교의 숙원이던 교실 앞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워싱턴성광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던 조희성 목사님 가족이 파송 받아 곧 우간다에 오시게 되고, 저희 큰아들이 선교 훈련을 시작하여 우간다에서 동역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재정 후원 덕분에 여기며 특별히 교회당과 학교 교실 건축비, 그리고 사랑의 양식을 나누기 지원, 예배당과 우물을 지원하신 서울광염교회, 신학교 건물과 교회당 건축비를 지원하신 지구촌선교회, 이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장학금, 빗물탱크, 스마트라디오 제작, 학교 운영비, 전기시설 등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 및 물품 수집하기

사역에 필요한 책과 학습자료(컴퓨터 파일 또는 영상자료, 몬테소리 교구 등)를 찾습니다.

- 1) 언어 : 영어
- 2) 종류 : 유, 초등학교 교재 및 문학, 신학 및 성경교재, 교육학, 전산 관련.
- 3) 필요한 물품 : 각 서적 (E-BOOK, 유, 초. 중고등 학습 교재, 성경적 학습 애니메이션, 성경 공부 및 신학 교재, 몬테소리 교재 및 교구), 물품(학습교구, 찬양대 가운, 악기, 새 컴퓨터, 방송 영상 기자재 및 음향기기 등)



헌금해 주신 분들 한창훈 장로, Jenny Chang, 권순자 권사

제라보건대 강의동 건축 모금 최종분 송금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잠비아 제라국제보건대학(Zera International College of Health Science) 강의동 건축을 담당하기로 하고, 기금에서 5만 달러를 출연하고, 모금에 힘을 써 모두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최종분(제3차) 송금을 마쳤다. 제라보건대학 강의동 건축은 활발하게 진행해 오던 중, 그동안 허일봉, 진미령 선교사님이 치료차 한국에 입국해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10월 말 귀국 후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2월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송년 임원 모임, 업무 점검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본부 임원과 실무진들이 송년모임을 갖고 미주본부의 사역을 점검, 기도하였다. 지난 12월 22일에 모인 송년회 및 업무 점검회의는 이사장 김홍식 장로 부부가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와 재정팀 황길남, 새로 합류한 IT팀 송은석 부부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재단은 홈페이지 개설을

africaffusa.org로 등록하였고, 구축에 착수했는데, 2월초 구축이 완료 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보인다. 신세대에 맞는 Venmo와 같은 새로운 송금 방법을 도입하여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1세 회원 사역을 중심으로 하되, 1.5세 및 2세 회원 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선교사 4인에게 특별 선교비 송금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동안 아프리카 미래재단 뉴스레터에 소개되었던 남아공 이원준, 김경환, 김재수 선교사와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 등 4인에게, 선교비로 각각 2천 달러씩을 송금했다. 우리 재단은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필요에 대해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했는데,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는 전달받은 선교비로 직업학교에 미싱 3대를 구입해 전달했으며, 신동현 선교사가 가르친 Scripture Only Scripture Ministry에서, 졸업생을 대표한 리차드 목사가 여덟 가지 제목의 감사를 나누는 가운데 보고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전해왔다.



나삼진 사무총장 한국본부 방문 사역 청취와 미국 사역 나눔 시간 가져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는 11월 5일 한국 아프리카미래재단을 방문하고 실무진들로부터 사역 현황을 청취, 업무를 파악하고, 미국 본부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과 교육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사역을 해 왔는데, 내년 5월에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박상은 대표는 나삼진 사무총장에게 미국본부 대표단도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 본부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지난 15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인데,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이사장 명성의대 장학금, 제라 보건대 특별 헌금 3만불

김홍식 이사장은 잠비아 제라보건대 강의동 건축비(2차분) 만 달러와 함께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에 장학금 2만 달러를 헌금해, 재단에서는 이를 명성의과대학 팀과 연결하여 대학에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오랫동안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 집중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 팬데믹 현상으로 강의를 가지 못하면서 이번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한 해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왔다.

빅토리 미션 골프클럽 특별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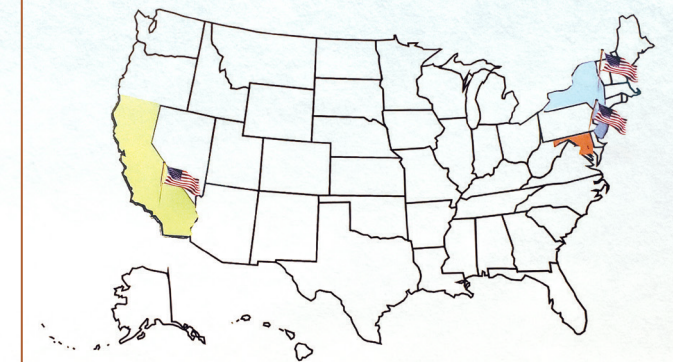
오렌지카운티 지역 장로들의 스포츠를 통한 선교와 친교 모임인 빅토리미션골프클럽(VMGC, 회장 정석봉 장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연말 결산을 하며 아프리카미래재단에 선교비 천 달러를 보내왔다. 빅토리미션골프클럽은 지난해 총회에서 AFF USA에 헌금을 전달하고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사역을 보고한 바 있다.

정용희 권사 특별헌금

정용희 권사(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위해 특별헌금 5천 달러를 보내왔다. 오랫동안 미네소타주에서 생활하다가 남가주로 이주한 정 권사는 평소 아프리카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오던 중 김홍식 내과를 방문하면서, 많은 후원관리단체들이 많은 행정비를 공제하는 것과 달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뉴스레터를 보고 "존경하는 김홍식 장로가 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장인 것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행정비 공제 없이 헌금 전부를 아프리카로 보낸다는 소식을 접하고 귀한 헌금에 동참"했는데,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의 감사 인사를 받고, 정 권사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본부/지부



- Los Angeles 본부**
 주소 :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전화 : 714-732-1484
- New York / New Jersey 지부**
 주소 : 1 Executive Drive Suite LL100
 Fort Lee, New Jersey 07024
 전화 : 201-218-2460
- Washington DC 지부**
 주소 : 9198 Red Branch Rd. #H
 Columbia, MD 21045
 전화 : 301-821-7214

나삼진 사무총장 한국본부 방문 사역 청취와 미국 사역 나눔 시간 가져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는 11월 5일 한국 아프리카미래재단을 방문하고 실무진들로부터 사역 현황을 청취, 업무를 파악하고, 미국 본부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과 교육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사역을 해 왔는데, 내년 5월에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박상은 대표는 나삼진 사무총장에게 미국본부 대표단도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 본부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지난 15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인데,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이사장 명성의대 장학금, 제라 보건대 특별 헌금 3만불

김홍식 이사장은 잠비아 제라보건대 강의동 건축비(2차분) 만 달러와 함께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에 장학금 2만 달러를 헌금해, 재단에서는 이를 명성의과대학 팀과 연결하여 대학에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오랫동안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 집중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 팬데믹 현상으로 강의를 가지 못하면서 이번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한 해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왔다.

빅토리 미션 골프클럽 특별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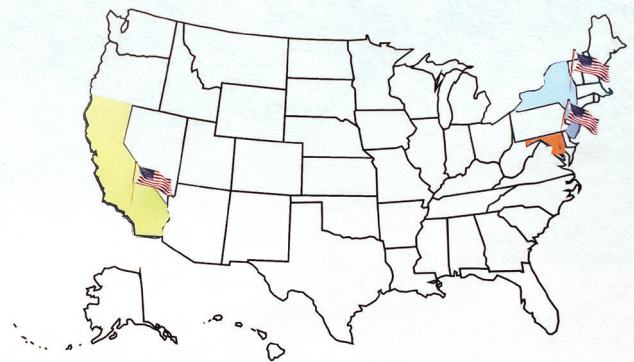
오렌지카운티 지역 장로들의 스포츠를 통한 선교와 친교 모임인 빅토리미션골프클럽(VMGC, 회장 정석봉 장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연말 결산을 하며 아프리카미래재단에 선교비 천 달러를 보내왔다. 빅토리미션골프클럽은 지난해 총회에서 AFF USA에 헌금을 전달하고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사역을 보고한 바 있다.

정용희 권사 특별헌금

정용희 권사(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위해 특별헌금 5천 달러를 보내왔다. 오랫동안 미네소타주에서 생활하다가 남가주로 이주한 정 권사는 평소 아프리카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오던 중 김홍식 내과를 방문하면서, 많은 후원관리단체들이 많은 행정비를 공제하는 것과 달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뉴스레터를 보고 “존경하는 김홍식 장로가 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장인 것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행정비 공제 없이 헌금 전부를 아프리카로 보낸다는 소식을 접하고 귀한 헌금에 동참”했는데,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의 감사 인사를 받고, 정 권사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본부/지부



- Los Angeles 본부**
 주소 :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전화 : 714-732-1484
- New York / New Jersey 지부**
 주소 : 1 Executive Drive Suite LL100
 Fort Lee, New Jersey 07024
 전화 : 201-218-2460
- Washington DC 지부**
 주소 : 9198 Red Branch Rd. #H
 Columbia, MD 21045
 전화 : 301-821-7214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14-732-1484 (미국) +82)2-342-9182 (한국)
aff@africaff.org
www.africaffenglish.modoo.at (영어)
www.africaff.org (한국어)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SWIFT C : BOFAUS3N

선한 청지기들 2021. 10. 1 - 12. 31 / 재정보고

헌금자 명단 : GugHyun Chang, Jenny Chang, Hanna Cho, Euiwon Chough, Jung Sook Choi, Sunny Han Chung, Jae Kyung Kang, Soon Ja Kwon, Tea Kwun, Ester Lee, Michelle Lim, Andrew/SoYoung Kim, Justin Kim, Hang M. Koo, Hyong Pak, Simon Paek, Jae Shim, Young Song, Micheal Yang, David Yoo, William Han, Woong Han
권순자 김용태, 김응원/김재선 김은식 김윤식 김홍식 나삼진 박예원 백형순 송영은 신영애 양해종 유재열 이승숙 이준현 이흥철 장국현 정용희 정재훈 정진철 태승남 한창훈 황길남 허지국/허영화 허철신
두렘돈장학재단 새벽이슬교회 OC살롱교회 OC한인교회 북가주 Joyful교회 빅토리선교골프클럽 Livingstone Home Health BWI Corp. Park's Family Foundation/박광원

지정헌금 : 송은석/이원희

*혹시 이름이 누락된 경우 AFF 사무실 (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전기이월	92,800.92
10월 현금	7,370.00
11월 현금	5,630.00
12월 현금	49,460.00
분기 수입	72,460.00
총수입	165,260.92

지출

사업비 / Zera International College	50,000.00
남아공 김경환 선교사	2,000.00
남아공 이원준 선교사	2,000.00
남아공 김재수 선교사	2,000.00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	2,000.00
지정헌금 송금/명성의과대학 장학금(지정)	20,000.00
김경환 선교사(지정)	1,860.00
뉴스 레터 편집/인쇄비	683.55
뉴스 레터 발송비/사무용품비	270.62
송금수수료	135.00
출장비	1,335.97
분기 지출 소계	82,285.14
잔액(차분기 이월)	82,975.78

아프리카를 기억 하소서



김홍식 장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장)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마음이 바빠진다. 바쁘게 다닐 일이 많은데 교통이 막히면 조금씩 지진다. 차로 갈 때도 걸어갈 때도, 좋은 싫든 우리는 교차로를 만나게 되어있다. 늦어지기에 썩 반갑지 않은 곳이지만, 오히려 교차점에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숨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사람과 마주칠 수 있다. 오래 전에 헤어졌다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 반가운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못 만나던 사이에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관이 비슷해진 것 같아 같이 기도 할 수 있을 때는 너무 기뻐서,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는 통하는 마음과 사랑을 느낀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의 교차점에서 반가운 이들을 만나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함께 일하고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며 기쁨임을 깨닫는다. 때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교차가 있어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어야 동행이 있고, 동행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때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생각을 다시 바꾸게도 된다. 내가 왜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양보하지 못했던가? 교차로의 모양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떠오른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똑바로 생긴 십자가이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아가 순교한 X자형이든, 십자가의 교차점은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꿔게 해 준다. 희생을 통한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며 적대감에서 긍휼을, 절망에서 희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여준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얼마 전 '오늘의 양식'에서 읽은 내용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목사가 간구하자 교인들도 울면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영상을 보면서, 어린 시절 '오늘의 양식' 필자가 섬기던 교회 목사가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라고 똑같이 간구했던 기억이 났다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행동하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을" 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는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인간이 예상치 못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

아프리카에 쌓여 있는 문제들과 현실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 먹먹해질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도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 겸손한 간구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프리카를 기억하소서!"